

# 제4장

## 1. 응급 상황·사고·큰 부상의 경우

극심한 통증이  
수반되는 병일 때!  
사고로 큰 부상을  
당했을 때!

119



### ● 구급차를 부를 때는...



- ★ 환자·부상자가 있는 장소를 알린다.
- ★ 환자·부상자의 상태를 알린다.
- ★ 공중전화의 경우에는, 전화기의 빨간 버튼을 누른 후 119에 건다. (각 지역의 재해구급정보센터로 연결된다.)

### ● 통보의 예



재해구급정보센터	통 보 자
かじ 火事ですか、きゅうきゅう 救急ですか? (화재입니까, 구급입니까?)	きゅうきゅう 救急です。(구급입니다.)
どうしましたか? (무슨 일입니까?)	ひと たお 人が倒れました。(사람이 쓰러졌습니다.) おなかがいたいです。(배가 아픕니다.) ケガをしました。(다쳤습니다.)
ばしょ 場所はどこですか? (장소는 어디입니까?)	〇〇区△△町です。えき ひがしぐち 駅の東口の近くです。 (〇〇구△△입니다. 〇〇역 동쪽출구 근처입니다.)
でんわばんごう おし 電話番号を教えてください。 (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.)	1234-5678 です。(又は公衆電話の場所) 1234-5678 입니다.(혹은 공중전화의 장소)
あなたのお名前は? (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)	통보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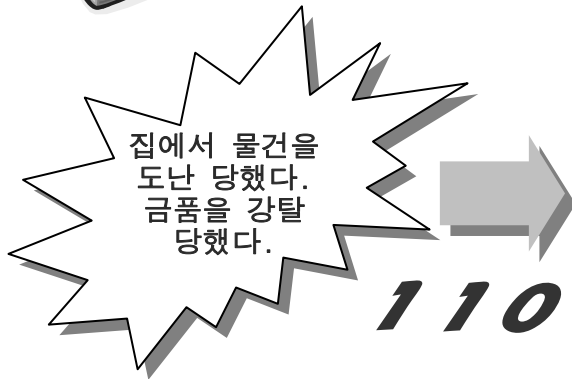
구급차는 5~6분 후에 도착



구급병원 안내·구급상담 → 도쿄소방청 텔레폰 서비스  
 도쿄 23 구내 : TEL 03-3212-2323  
 그 외의 지역 : TEL 0425-25-0119



## 2. 도난·분실



★주소·이름을 알린다.

★사건의 내용을 전한다.

★공중전화를 이용할 때에는,  
전화기의 빨간 버튼을 누른  
후 110에 건다.



◆도난·분실 등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

- ① 경찰서·파출소에 간다
- ② 「도난신고」 「분실신고」를 한다.
- ③ 경찰서에서 도난이나 분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는다.



### ●여권을 분실했다면?

경찰서에서 「도난신고」 또는 「분실신고」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.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가서, 여권 재발행을 신청한다. 재발행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수속을 해야한다. 본지 32P 참조.



### ●은행카드·통장·인감을 분실했다면?

은행에 연락해서 분실한 사실을 알린다. 카드·통장이 현금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.



### ●자전거가 없어졌다면?

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한다.

이것은 방법등록을 해놓은 경우에 해당되며,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

**방법대책** : 자전거를 둘 때에는 반드시 주린장에 세워두며,  
며칠동안 계속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.  
(\* 자전거 도난의 50%가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경우이다.)





### 3. 화재가 발생했을 때

#### ●화재방지를 위한 체크 포인트

★담뱃불 - 통계에 따르면,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담뱃불의 허술한 뒤처리이다. 반드시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 피우며, 피우고 나서는 확실하게 불을 끄도록 하자. 또, 침대나 이불 위에서의 흡연도 위험하므로 삼가한다.



★스토브·코타츠 - 스토브 주위나 코타츠 안에 발화하기 쉬운 물건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. 스토브의 경우, 사용 중에 기름을 넣거나 위치를 옮기지 않도록 할 것.



★전기코드 - 전자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둔다.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은 채로 방치하여, 먼지가 쌓일 때까지 내버려 두거나 코드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지 않는다. 또 문어발식의 배선도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할 것.



#### ●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...

무리해서 자기 스스로 불을 끄려하지 말고, 반드시 큰 소리로 「火事だ! -불이야!」라고 외쳐서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.

★소방서 (119 번) 에 통보한다. 이 때 「火事です! - 불이 났습니다!」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, 주소를 정확하게 알린다.  
⇒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



★소화기·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알아 둔다.

만약의 화재나 재해에 대비하여, 소화기와 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잘 익혀 두도록 하자. 소화기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.

안전핀을 제거한다.



호스를 불이 난 쪽에 댄다.



레버를 짹 쥐고 분사



◆알아 두어야 할 또 하나의 위험 요소 - 화재가 발생했을 때,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연기이다. 전문가에 따르면 화재에 의한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원인이 일산화탄소(CO) 중독이라고 한다. 화재 발생시에는 젖은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하도록 한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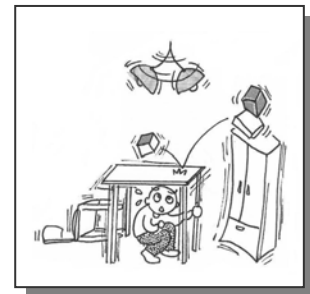
## 4. 지진이 발생했을 때

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진 다발국이다. 작은 지진은 시시때때로 발생하므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당황스럽겠지만, 건물이 붕괴할 정도의 지진은 거의 드물다.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, 건물 가까이에 서 있으면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위험하므로, 공원 등의 넓은 장소로 대피한다.

### ●지진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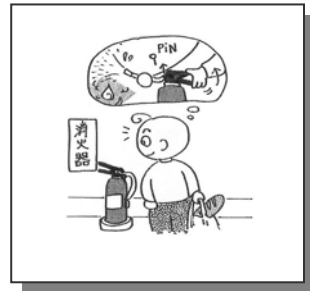
#### ① 진동을 느끼면, 책상 밑으로

우선, 떨어지는 물건이나 쓰러지는 가구에 깔리지 않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. 머리를 보호하면서, 책상 밑과 같은 좁고 튼튼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진동이 멎을 때 까지 기다린다. 당황해서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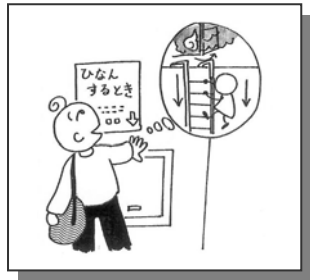
#### ② 불의 처리는 재빠르게

지진에 의한 대 참사는 대부분 화재로 인한 것이다. 주위의 불이 붙기 쉬운 가스·스토브 등은 모두 끈다. 평상시에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준비해두고, 욕조에 물을 채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



#### ③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

만에 하나 실내에 갇혀버렸을 때에 대비하여 즉시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.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두며, 닫히지 않도록 물건을 괴어둔다.



#### ④ 진동이 가라앉으면, 상황을 확인

작은 지진의 경우에도 반드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「지진속보」가 방송되므로, 피해상황에도 주의하며 듣도록 하자.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의 지정된 피난장소로 대피하는 일도 있다.



### ◆유비무환

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일본의 각 가정에서는 비상용 식수와 식료품 등을 비축하고 있다. 배낭 등에, 물과 식료품·손전등·여벌의 옷·라디오 등을 넣어 「비상용품 세트」를 준비해둔다.

## 5. 교통사고가 났을 때

교통사고는 자동차 뿐 아니라, 오토바이 · 자전거와 보행자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.

### ●자신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

★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경우  
→119 번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부른다.

★110 번에 연락한다 → 「사고신고」를 한다.  
상대방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를 알리고,  
자신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도 알린다.  
경찰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고, 경찰관의  
입회를 요청한다.

★친한 일본인(학교 선생님 · 보증인 등)  
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 
상담한다.

★상대방이 다친 경우 →  
치료비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


교통사고시에는 피해자의 입장이든, 가해자의 입장이든, 치료비 및 손해배상의 합의가 복잡하다.



★잘 알고 있는 일본인에게 상의한다.  
★상담기관에 상담한다.



### 교통사고 상담 (도쿄도민 대상)

교통사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해 배상문제, 합의방법,  
보험수속 등

TEL : 03-5320-7733

시간 : 9:00~17:00 (월요일~금요일 · 공휴일은 휴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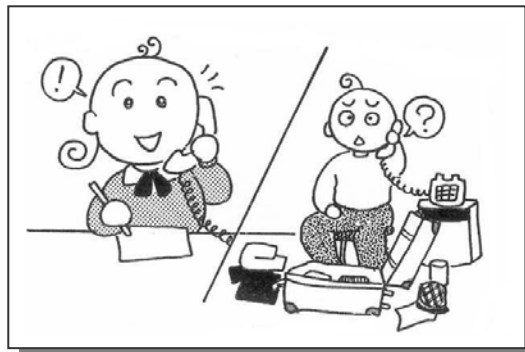
●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...

## 교통재해공제제도

도쿄도의 각 구·시에서는 교통재해공제제도를 정하고 있어,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.



제 도	도쿄도의 23 구에서는 1 년간 500 엔 정도를 지불하면,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위로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. 위로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9 단계로 나뉘어 있다.
가입창구	거주하고 있는 구청·시청의 「교통재해공제창구」



### ◆참고 : 재해보조제도

#### ★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

의료보조제도는 아니지만, 학생이 교육연구활동 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(수업 중의 부상, 통학 중의 교통사고 등)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·상해 보험제도이다. 대부분의 대학·단기대학이 가입하고 있으므로 학교 사무국에 문의할 것.

#### ★ 유학생주택종합보상

유학생이 만일의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, 기숙사나 임대계약시에 가입하면, 보증인(유학생의 지인이나 대학의 담당교직원 등)에게 폐를 끼치는 일 없이,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. 유학생이 저렴한 부담금(년간 7,500 엔 정도)으로, 만일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.